

욕심쟁이 강별장

쌍둥이 오름이라 불리는 대병악과 소병악은 오름 정상에서 조망할 수 있는 아름다운 풍경 때문에 탐방객들의 사랑을 꾸준히 받고 있다. 이 오름에는 욕심이 많았던 강별장의 이야기가 전설로 전해진다.



병악로 | 서귀포시 안덕면 상창리 1306-1 ~ 안덕면 상천리 545-5(약 5.5km)

식물도로 | 서귀포시 안덕면 창천리 70-3 ~ 안덕면 상창리 290(약 2.5km)

상천로 | 서귀포시 안덕면 상천리 470-9 ~ 안덕면 상천리 산99-9(약 2.3km)

광평로 | 서귀포시 안덕면 상천리 산99-4 ~ 안덕면 광평리 257(약 1.3km)

병악로/쇠물도로 | 강별장과 병악



소병악

병악로는 상창리에서 시작해 상천리까지 이어지는 길이다. 길 인근에 병악이라는 오름이 자리하고 있어 오름의 이름을 반영해 병악로라 했다. 병악은 두 개의 오름으로 되어 있는데 생김새가 매우 쌍둥이처럼 매우 닮았다. 그 중에 상대적으로 큰 오름을 대병악, 작은 오름을 소병악이라고 부른다. 이 오름에는 강별장과 관련된 전설이 전해온다. 옛날 감산리에 아주 부자인 강별장이 살았다. 그는 성격이 괴팍하고 욕심이 많았다. 어느 날 한 스님이 시주를 부탁하기 위해 그의 집을 찾아왔다. 강별장은 쌀이 아까워 대신 두엄을 주면서 쫓아내 버렸다. 그 후로 마

을에 이상한 소문이 돌았다. 강별장의 조상이 묻혀있는 오름 봉우리 하나가 다른 것보다 높으니 이것을 깎아 비슷하게 만들면 집안이 크게 발복한다는 것이다. 강별장은 그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을 동원해 오름을 깎기 시작했다. 그러자 오름에서 붉은 피가 흘러내렸다. 강별장이 오름을 깎고 있다는 소식이 조정엔 전해지자 조정에서는 분명 역적이 날 것임이 틀림없다고 생각하고 강별장과 자식들을 잡아올렸다. 결국 집안이 잘되기는커녕 역적으로 몰려 망하고 말았다는 것이다.

상천리에서 시작되어 상창리에서 병악로와 만나는 쇠물도로는 옛 지명인 쇠물도와 돌밭이 접한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상창리에 있는 쇠물도는 우수천(牛水川)이라고도 하는데 이 부근에 방목하던 소들이 목을 축이는 물이었다고 한다. 또 다른 이야기에는 지형이 송아지가 어미를 찾아 우는 모습이라서 쇠물도로 불리던 것이 쇠물도로 변하게 되었다고도 한다.

상천로/광평로 | 상천리와 광평리

상천로는 상천리 마을을 지나는 중심 도로이다. 이 길은 상천리사무소 인근에서 시작해 산록남로와 이어진다. 예전에는 이 마을을 옷내, 옷창고내 또는 백록동이라고 불렀다. 옷내와 옷창고내는 안덕면의 마을들을 지나는 창고천의 위쪽에 있는 마을이라는 의미이고, 백록동은 한라산에 산다고 하는 흰 사슴이 새끼를 낳기 위해 이곳까지 내려왔었다는 의미

로 불리던 이름이다. 지금 사용하는 상천리(上川里)라는 이름은 창고천의 위에 있다는 의미라고도 하고, 창천리의 위쪽에 있는 마을이라는 뜻이라고도 한다. 상천리는 중산간 지대에 자리하고 있는 전형적인 산촌마을이다. 바닷가에 살던 사람들이 극심한 흉년과 수해를 견디지 못해 산으로 올라와 화전을 일구어 살면서 마을이 생겨났다고 전한다. 이 마을 역시 4·3사건 때 많은 피해를 입었다. 문덕계, 비지남홀동네, 울리튼물마을 등이 폐촌되는 아픔을 겪었다. 이후 사람들이 마을을 재건하면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상천로와 산록남로가 만나는 지점에서 시작하는 **광평로**는 광평리의 중심 도로이다. 상천리의 북쪽에 위치한 광평리는 예전에 조씨들이 들어와 살게 되면서 조가동으로 불렸다고 한다. 이후 중산간 일대에 국영목장들이 설치되면서 이곳에도 목장이 들어서게 되었다. 그것이 계기가 되어 마을이 점점 커졌고, 일제강점기에 이르러 조가동과 조숙동, 마통동을 합쳐 광평리라 부르게 되었다. 하지만 4·3사건 때 마을이 모두 소개되었다. 이후 다시 재건되면서 오늘에 이르게 되었다. 광평리는 이돈이오름, 돛박이, 왕이메, 괴수치, 죽은대비약 등 사방이 여러 오름들로 둘러싸여 있어 중산간의 아름다운 경치를 조망할 수 있다.

